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무소불위 국제스포츠기구, 대항마는 언론

필자는 회사법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독일 뮌헨대학에서 공부할 때 전공 분야는 국제법이었다. 지도교수는 훗날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2003~2012)를 지내고 1984년 아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판관이었던 브루노 짐파 교수였다. 짐파 교수는 뮌헨대학에서 국제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필자는 1986년에 그 연구소 조교로 임명되면서 국제스포츠법 분야를 담당했다.

국제스포츠법은 당시 서독에서 전혀 새로운 분야였다. '무소불위'에 투명성이 결여된 국제스포츠기구들과 '약자'인 운동선수, 각국 스포츠단체 사이의 분쟁 해결을 연구하기 위해 새로 출범했던 분야다. 그때 유럽에서는 스위스 육상선수 산드라 가짜가 도핑 혐의로 국제육상연맹의 출전금지 처분을 받고 베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국제육상연맹이 판결을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었다.

IOC와 FIFA를 필두로 하는 국제스포츠 단체들이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를 야기한 역사는 오

래다. 2022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형 스캔들이 그를 상징한다. 문제는 이 단체들의 특수한 위치와 정치적 파워 때문에 이들을 견제할 외부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100명 남짓한 인원이 일하는 FIFA의 연수입은 5조 원을 넘고 회장은 21개 회원국에서 국가원수급 대우를 받는다.

개인 비리에는 국제형법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본국과 비리가 발생한 국가의 사법권이 행사되지만 증거 조사 등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국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가짜 사건에서처럼 국제기구 자체가 한 나라의 판결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별 대책이 없다.

FIFA 윤리위원회는 2015년에 정 이사장에 대해 축구계에서 손발 다 묶어버리는 내용의 6년 자격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반부패'를 핵심으로 내부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 이사장의 FIFA 회장 출마에 대한 블레터 회장의 견제였다. 억지로 씌웠던 현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조사 비협조'로 다시 시비하는

식의 치졸한 방식이 동원되었다.

정 이사장은 CAS에 제소했고 CAS는 2018년에 FIFA의 제재가 명백하고 심각하게 부당했다며 최종 판정을 냈다. FIFA의 비협조로 쓸데없이 시간이 더 소요되어 정 이사장은 장기간 명예면 뉴욕타임스가 "FIFA와 '윤리'라는 단어는 가장 모순되는 관계"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국제스포츠기구들의 권력에 대해서는 법률보다는 양식있는 언론이 더 효과적인 견제장치다. 영국의 선데이타임스, BBC 등의 보도로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지 선정 비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스위스 경찰과 미국 FBI가 월드컵 중계권 판매 부정을 포착, FIFA 고위인원 14인을 체포하자 회장 5선에 성공했던 블레터는 2015년 6월에 사퇴했다. 당시 UEFA 사무총장이었던 인판티노 현 FIFA 회장은 "FIFA의 학적으로 사망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블레터는 이제 정 이사장에게 가해졌던 6년 자격정지 제재를 똑같이 돌려받는 처지다.

제재가 끝나면 85세이니 불명예 은퇴다.

필자의 브라질 학생 하나는 자기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축구로 성공하고 싶어해서 범죄와 마약을 멀리한다고 했다. 월드컵 기간에는 범죄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큰 축구를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정작 자신은 비리와 반개척적 행동으로 얼룩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역설이다.

국제경기 오심 사비도 문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체조경기다. 심판의 오심이 발생했는데 피해자 양태영 선수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국제체조연맹이 오심 심판들에게 자격정지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IOC는 침묵했다. 어부지리 미국 선수는 자국 올림픽위원회를 등에 업고 그냥 버렸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누가 금메달을 땀지만 기억할 뿐이다.

도쿄올림픽이 다가오는데 지금의 한일관계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부당한 일이나 불이익을 받아서 법이나 CAS를 찾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혹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와 글로벌 인권이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는 스포츠가 대변하는 규율과 인내, 협동과 희생 같은 가치를 선수들을 통해 사회에 전달하고 정치의식에 편입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 못지않게 선수 보호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 社 說

### '신종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막아야

9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환자가 1명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확진자는 세 명이다. 지역사회 방역체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망 구축이 요구된다. 최초 발생지인 중국에서는 우한폐렴 환자가 연일 수천 명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급격한 확산의 초입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광주는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첫 주말 광주 도심 변화가 인적이 끊기며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영화관 예매율은 고작 5%대에 그쳤고 놀이공원 이용객은 90%까지 급감했으며 고속도로마저 차량 운행이 크게 줄어들며 지역민들의 감염확산에 대한 공포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준다.

우한폐렴의 경우 최근 새롭게 확진 받은 4명 가운데 3명은 앞선 환자의 가족이나 접촉자들로 2·3차 감염에 해당한다. 나머지 한 명은 관광을 위해 입국한 중국인 여성인데, 입국 날짜가

지난달 23이었다. 중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복기나 초기 발병 상태의 약 2주일간 아무 제약 없이 관광지나 국내 곳곳을 돌아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례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이 일정한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최근 여러 징후들을 놓고 볼 때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보인다. 중국이 아닌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를 여행하다가 감염된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또 2·3차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 의심 사례가 속출할 정도로 감염 경로 다양화와 감염 형태의 모호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점이 더욱 경계심을 갖게 한다.

당국은 보다 철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자 관리와 방역 등 제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혹여라도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각 방역당국에 연락하거나 개인위생관리를 신경 쓸 것을 거듭 당부한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명 알로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파트 음식물 화재시 K급 소화기 사용 습관화 해야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화재의 특성은 착화 시 온도가 상승하면 식용유 표면상

의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하고, 25㎡ 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은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분말소화기

의 경우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출 수 없어 언제든 재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시키며,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소방안전관리자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글언론진흥재단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